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ends in the Hanbok *Jeogori*

Su-Joung Cha*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intellectual property (IP) data—including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 rights-related to Hanbok Jeogori from 1981 to 2025 to explore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for traditional cloth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Jeogori IP has evolved from practical improvements to appearance protection, and finally to a fusion of technology and design, marking a paradigm shift toward high-value-added assets. However, a structural limitation was identified in the heavy concentration of individual applicants (over 90%), reflecting a lack of corporate R&D. Furthermore, the results confirmed a clear geographical division between the southern region (manufacturing) and the metropolitan area (design), alongside a transition toward "technical apparel" centered on ergonomic design and process efficien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es: an "IP mix" and joint rights to protect both design and technology simultaneousl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lusters linking manufacturing and design hubs, digital archiving and licensing of master craftsmen's skills, and a global market entry strategy focused on "single-item" Jeogori based on the Locarno classificatio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driven industrialization of traditional clothing by organically linking data analysis with strategic recommendations.

▶ **Key words:** Hanbok, Jeogori, Patent, Utility model, IPC

[요 약]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통복식의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저고리 지식재산권은 실용적 개량에서 외형 보호, 기술과 디자인 융합의 단계로 진화하며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나 개인 출원 편중에 따른 기업 R&D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남부권과 수도권 지역의 지리적 분업 구조와 더불어 인체공학 설계 중심의 테크니컬 의류로의 진화 양상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기술을 동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믹스 및 공동 권리화, 제조와 디자인 거점을 잇는 지역 연계형 클러스터 구축, 개인 숙련 기술의 디지털 자산화 및 라이선싱, 로카르노 분류 기반의 저고리 단품 중심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제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통복식의 단순 보존을 넘어 기술 기반 산업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한복, 저고리, 특허, 실용신안, 국제특허분류

- First Author: Su-Joung Cha, Corresponding Author: Su-Joung Cha
- Su-Joung Cha (carollain@mnu.ac.kr), Dept. of Fashion &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2025. 12. 22, Revised: 2026. 01. 26, Accepted: 2026. 01. 28.

I. Introduction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서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Girl group HUNTR/X)의 한복 개조 무대의상과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Boy group Saja Boys)의 두루마기, 갓 차림이 인기를 끌면서 한복과 한국의 전통문화 관련 산업이 재조명되고 있다[1]. 한복은 한국인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현대 패션산업에서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2].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젊은 층 역시 한복을 착용하고 고궁이나 종묘 등을 방문하거나 댄스 영상을 촬영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공유하는 현상은 K-패션과 전통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한복 인기의 확산과 함께 전통 복식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지나치게 변형된 한복 대여 문화에 대한 비판 의견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3]. 금박 자수, 서양 드레스 형태의 부풀린 치마, 시스루(see-through) 저고리 등 전통미와 거리가 먼 지나친 변형 한복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인 한푸(Hanfu)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4] 전통 한복의 원형 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한복 재조명과 정체성 보호의 흐름 속에서, 한복의 상의 구성요소인 저고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저고리는 착용 방식, 구조적 형태, 재단법의 변천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복식 요소로, 시대별·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5]. 최근에는 '신(新)한복'이라 불리는 현대적 한복 디자인의 확산과 함께 저고리가 전통미와 실용미를 결합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되고 있다[6].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식 재현을 넘어 전통 디자인의 산업적 가치 창출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실제로 한복 관련 디자인, 패턴, 제조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저고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저고리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산업화 가능성과 시장 가치를 지닌 기술 기반 디자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한복 관련 연구는 주로 패턴 구조, 원형 개발, 가상착의 시스템, 현대화 디자인 등 디자인 및 구조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Im은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년 여성용 저고리 원형을 설계하였고[5], Cha 등은 기성

복 브랜드에 나타난 신한복 저고리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6]. Han & Cho는 근래 여성 저고리 패턴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실루엣과 비례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됨을 밝혔다[2]. 그러나 저고리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선영의 분석에 따르면 한복 관련 출원 중 다수가 저고리에 해당되었으나, 해당 연구는 전통 복식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개별 아이템인 저고리의 구체적 기술 유형, 분류 코드별 특성, 기능적 개선 방안 등 세부 기술 동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7]. 더불어, 한복 산업은 'K-패션' 및 '한류 문화산업'의 확산과 함께 전통 복식이 현대 패션 시장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저고리의 실용성, 착용감 개선, 기능성 부여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LO 3D 등 디지털 의복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설계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산업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분석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의 기술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통 복식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 복식이 현대적 기술 및 산업적 권리로 전이되는 진화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전통 기반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시기별 출원 추이는 어떠한가, 권리 유형의 변화를 통해 본 한복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출원인 주소지 및 출원인에 따른 지리적·조직적 특성은 어떠한가, 이것이 저고리 기술 보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국제특허분류(IPC) 및 국제디자인분류(Locarno)를 통해 나타난 저고리의 기술적 진화 양상과 구체적인 기능적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패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관리 및 상용화 방안은 무엇인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Changes in the Hanbok Jeogori and its Components


한복은 신체와 공간의 관계, 선(線)과 면(面)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복식 체계로, 조형미, 기능성, 상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 복식이다. 이 중 저고리(赤古里)는 한국 민속 의복 중에서 상의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조선 초기인 세종 2년(1420년)이다[8].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길이나 형태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고대에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소매통이 좁은 형태였으며, 삼국시대에는 앞을 여미는 전개형(前開形)으로 엉덩이를 가릴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허리대가 없어지고 고름과 동정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현대 저고리 형태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선 전기에는 허리를 가릴 정도의 품이 크고 넓은 형태였으며, 폭이 넓은 목판깃과 직배래 형태 소매를 가졌다. 조선 중기 이후 저고리는 짧아지기 시작하였고, 소매 형태는 곡선의 배래가 생겨나면서 한국 복식 특유의 곡선미가 강조되었다[8][9].

저고리는 길이, 품, 소매, 고름 등 세부 요소의 조합에 따라 착용자의 성별, 연령, 계층, 시대적 미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저고리는 바느질 방법, 장식, 형태,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라서는 민저고리, 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로 분류되는데, 민저고리는 가장 기본형으로 길, 소매, 깃, 고름 등 전체를 같은 옷감으로 제작한다. 반회장저고리는 깃과 고름, 끝동에만 저고리의 색과 다른 색의 천을 덧댄 저고리이다. 삼회장저고리는 깃, 고름, 결마기는 자주색, 소매 끝동은 자주색이나 남색을 대어 만든 저고리이다. 색동저고리는 소매를 여러 색으로 이어 붙여 만든 저고리로 까치저고리라 부르기도 한다[8].

바느질 방법에 따라서는 홑저고리, 겹저고리, 솜저고리, 박이저고리, 누비저고리, 깨끼저고리로 나뉜다. 깨끼저고리는 속이 비치는 얇은 옷감을 사용하여 곱솔로 바느질한 저고리이며, 솜저고리는 옷감의 안과 겉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든 저고리이다. 누비저고리는 누비의 간격과 솜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8]. 또한, 계절에 따라 모시저고리, 누비저고리, 솜저고리, 갓저고리로, 깃 모양에 따라 당코깃저고리, 목판깃저고리, 칼깃저고리, 둥근깃저고리로 구분된다[10]. 이처럼 저고리의 길이, 품, 소매, 깃 등 세부 구성요소의 미세한 변화와 다양한 바느질 기법은 단순히 미적 감각을 넘어 착용감 개선 및 기능성 부여 기

술개발의 대상이자 디자인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저고리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Jeogori by Form and Git Design

| | | | | |
|------|---|---|---|---|
| Form |  |  |  |  |
| | Plain Jeogori | Banhoejang Jeogori | Samhoejang Jeogori | Saekdong Jeogori |
| Git |  |  |  |  |
| | Dangko-git | Mokpan-git | Kal-git | Dunggun-git |

저고리는 한국 전통 복식의 상의로서, 앞길과 뒷길, 소매, 깃, 동정, 섶, 고름 등 여러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등솔, 직선 진동선, 섶, 동정 등에서 전통한복 고유의 구조적 요소가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11]. 길은 저고리의 앞뒤 중심부를 이루는 넓은 목판으로, 소매를 제외한 상반신을 감싸며 기본 실루엣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소매는 배래 곡선, 소매통, 끝동 장식 등으로 구성되며, 소매길이는 화장이라 하여 뒷목점부터 어깨점을 거쳐 손목뼈까지 일직선으로 측정된다[11]. 섶은 앞가슴을 단정히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여밈부위를 보강하는 핵심 요소이다[10]. 깃은 목둘레를 따라 길고 좁은 띠 모양으로 감싸며, 목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앞중심에서 옷을 겹쳐 여미게 하는 역할을 한다[12]. 고름은 깃 끝과 반대편에 부착되어 여밈기능과 장식성을 동시에 담당하며, 길이와 폭의 비율이 미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정은 깃 위에 덧대어 부착하는 흰색 천으로, 목 부위 오염 방지라는 위생적 역할과 함께 목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장식적 효과를 지닌다[13]. 최근에는 동정의 탈부착 편의성을 높이거나 형태를 유지하는 기술적 고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처럼 저고리의 각 구성요소는 전통적인 조형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착용의 편의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 부위로 현대 패션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다.

2. Review of Prior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ashion Sector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

(無體)의 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시 보호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 보호되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 보호된다[14]. 산업재산권 중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이고,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상표권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이다[15].

최근 국내외에서는 패션 및 전통 복식 분야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한복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복 치마에 관한 연구[16]와 한국 복식 전체에 관한 연구[7] 등이 있다. 한복 치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실용신안(60.0%)이 특허(40.0%)보다 많았으며, 기술 분야는 허리 말기, 치마, 어깨, 눈물 고름 등으로 분류되었다. 출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여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출원인은 개인이 약 80.0%로 나타났으며, 기술은 허리 구조 및 고름 기능 개선에 집중되었다[7]. 1971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 복식 관련 지식재산권 분석 연구에서는 한복 저고리와 치마 관련 출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개발 내용은 제작 과정과 제도 방법 등 실용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술 발명보다는 형태, 색채, 조형적 완성도 향상에 집중된 경향을 나타냈다[7]. 이는 저고리 개별 아이템의 착용감,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기술적 혁신 동향을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한편, 패션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는 다양한 기능성 아이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브래지어 관련 특허 분석은 기능에 따라 외관, 사용편이성, 편안함, 건강관리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술은 컵, 삽입물, 부품 중심의 구조적 영역에 편중되었다[17]. 거들 관련 특허는 의류 구조 중심의 인체 착용 기술군에 속하나, 의학이나 전기 등 관련 응용 기술도 출현하였다[18]. 임산부 의류 관련 특허는 의복 구성 설계나 봉제, 소재, 각종 장치 부가 등의 기술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능성, 편이성, 실용성 등을 위한 기술이 많았다[19]. 레깅스 관련 특허는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센서를 통한 운동처방 및 동작분석이 용이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20]. 이 외에도

사이클 의류[21], 기능성 의류[22], 장애인 의류[23] 등 다양한 의복 아이템에 대한 특허 관련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일반 패션 분야의 지식재산권 연구는 특정 기능이나 구조적 영역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활발하며, 첨단 기술과의 융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 복식인 한복 저고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성 및 기술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산업화 전략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고리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전통 복식의 현대적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Study Methods

1. Data Collection

국내에서 출원된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 분석을 위해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검색창에 ‘한복 저고리’, ‘저고리’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추출하였다. 검색 시 행정 상태 중 포기, 취하, 무효, 거절 등은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특허 115건, 실용신안 60건, 디자인권 581건이 검색되었다. 내용을 검토하여 저고리와 관련이 없는 배넛저고리, 포장지 등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한 지식재산권은 특허 50건, 실용신안 29건, 디자인권 384건이었다. 분석기간은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1982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2. Analysis Criteria

본 연구는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출원시기, 출원인, 출원내용, 출원지, IPC 분류 코드 등을 분석하였다. 출원 시기는 5년 단위로 분류하였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를 제1기, 1986년부터 1990년까지를 제2기, 1991년부터 1995년까지를 제3기, 1996년부터 2000년까지를 제4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제5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6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7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제8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제9기로 나누었다<Table 2>.

출원인은 개인, 기업, 학교,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고, 출원지는 출원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해외 등으로 분류하였다. 출원내용은 문서의 명칭, 요약, 도면 설명, 핵심

청구항, 설명내용을 기반으로, 구조개선, 착용감, 기능성, 미적 요소, 제작 공정 등으로 구분하였고, 국제특허분류 코드인 IPC 코드에 따라 기술 분야를 분류하였다.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분석 기준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Application Periods

| Division | Period | Division | Period |
|----------|-----------|----------|-----------|
| 1st | 1981-1985 | 6th | 2006-2010 |
| 2nd | 1986-1990 | 7th | 2011-2015 |
| 3rd | 1991-1995 | 8th | 2016-2020 |
| 4th | 1996-2000 | 9th | 2021-2025 |
| 5th | 2001-2005 | | |

Table 3. Analysis Contents

| Division | Contents |
|----------------------|--|
| Application place | Seoul, Kyunggi, Kangwon, Chungbuk, Chungnam, Kyungbuk, Kyungnam, Jeonbuk, Jeonnam, Abroad etc. |
| Applicant | Company, Individual, University, Other etc. |
| Application technic | IPC |
| Application contents | Manufacturing methods, Materials, Accessories, Functional features, Design etc. |

3.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는 기술통계 외에 출원시기, 출원인, 출원지역, 권리유형, 내용 범주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기와 권리유형, 시기와 출원인 유형, 권리유형과 내용, 출원지와 권리유형 등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포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로 개인출원을 종속변수로 두고 시기, 출원지, 권리유형, 내용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개인 출원 편중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권리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시기, 출원지, 출원인, 내용이 유형 선택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에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IV. Results

1. Filing Period and Applicants of Jeogori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한복 저고리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최초 출원 건을 살펴보면, 특허는 1991년 11월 8일 출원된 것으로, 한복 두루마기, 저고리 등에 부착되는 깃과 동정의 이중 결합 방법에 관한 기술(등록번호: 1019930009548)이

다. 출원인은 개인이며 서울에서 출원되었다. 실용신안은 1982년 12월 22일 출원된 것으로, 두꺼운 층과 얇은 층을 등분하여 계층으로 형성된 동정 표면에 공지의 접착층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동정(등록번호: 2000279610000)에 관한 기술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동정과 관련된 기술이었다. 디자인권은 1989년 2월 14일 출원된 것으로, 한복 디자인에 관한 내용(등록번호: 3001011820000)이다. 출원인은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이며, 서울에서 출원되었다<Table 4>.

Table 4. The First Filing of Jeogori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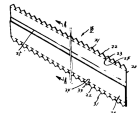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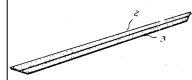

| Div. | Image | Application date | Technical content |
|---------------|--|------------------|--|
| Patent |  | 1991.11.08. | Double-attachment method for the git and dongjeong |
| Utility model |  | 1982.12.22. | A dongjeong comprising a surface formed with a known-in-the-art adhesive layer on a dongjeong body that is formed in layers by equally dividing a thick layer and a thin layer |
| Design |  | 1989.02.14. | Industrial design of the Hanbok jeogori |

Table 5. Filing Periods of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Unit: N(%)

| Filing period | Patent | Utility model | Design |
|-----------------|-------------|---------------|-------------|
| 1st (1981-1985) | 0 (0.00) | 1 (3.45) | 0 (0.0) |
| 2nd (1986-1990) | 0 (0.00) | 1 (3.45) | 2 (0.52) |
| 3rd (1991-1995) | 1 (2.00) | 1 (3.45) | 11 (2.86) |
| 4th (1996-2000) | 6 (12.00) | 4 (13.79) | 46 (11.98) |
| 5th (2001-2005) | 2 (4.00) | 16 (55.17) | 28 (7.29) |
| 6th (2006-2010) | 9 (18.00) | 3 (10.34) | 93 (24.22) |
| 7th (2011-2015) | 10 (20.00) | 2 (6.90) | 58 (15.10) |
| 8th (2016-2020) | 9 (18.00) | 1 (3.45) | 70 (18.23) |
| 9th (2021-2025) | 13 (26.00) | 0 (0.0) | 76 (19.80) |
| Total | 50 (100.00) | 29 (100.0) | 384 (100.0) |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출원시기를 분석하면 <Table 5>와 같다. 특허는 제1기와 제2기에는 출원이 없었으며, 제3기(1991-1995)부터 출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9기(2021-2025)에 전체의 26.0%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제7기(2011-2015)가 20.0%, 제6기(2006-2010)와 제8기(2016-2020)가 각각 18.0%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의복의 기능성, 인체공학적 설계, 전통 의상 현대화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저고리 관련 특허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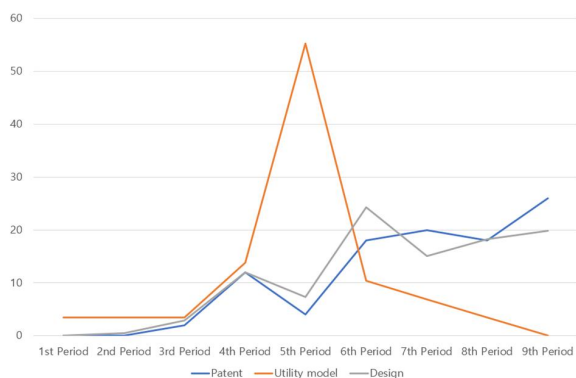


Fig. 1.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Filing Trends

실용신안은 제5기(2001-2005)에 전체의 55.17%가 집중되어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 이후에는 신규 출원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실용신안은 199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원되었다. 실용신안이 제5기에 집중된 이유는 1999년 도입된 선등록(무심사) 기반의 신속 권리화 제도가 한복 공방과 개인 중심의 소발명 보호 수요와 결합한 결과이며, 2006년 이후 심사후 등록으로의 전환이 예고되면서 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은 제6기(2006-2010)에 전체의 24.22%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제7기(2011-2015)에 다소 감소하다가 제8기(2016-2020)와 제9기(2021-2025)로 오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제9기에 나타난 특허 출원의 증가는 ‘K-컬처의 세계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 특히, 2020년 전후 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의 무대 의상으로 한복이 주목을 받으면서 ‘신한복’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를 상업화하려는 개인 발명가들의 기술적 차별화 시도가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은 1980년대 실용신안 중심의 기술적 보호에서 2000년대 이후 디자인 중심의 외형 보호, 2010년대 이후 기능성과 디자인 융합형 특허 출원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전통복식이 단순한 문화재 모방 단계를 넘어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된 산업화 단계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제1기부터 제4기까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모두 증가하였으며, 제5기에는 실용신안은 급격히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권은 감소하였다. 제6기에는 실용신안은 급격히 감소하고 특허와 디자인권은 증가하였다. 제7기부터 제9기에는 실용신안은 감소하는 하향곡선을 나타냈고, 특허와 디자인권은 상승곡선을 나타냈다<Fig. 1>. 이는 2006년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과 지식재산권 인식 확산으로 인해 출원인들이 모방이 쉬운 소품의 기능 개선보다는 강력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특허와 디자인권으로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

한복 저고리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구성을 살펴보면, 특허는 전량(100.0%) 개인 출원으로 나타났다. 실용신안은 개인이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업과 학교는 각각 3.4%였다. 디자인권 역시 개인 출원이 91.9%로 우세하였고, 기업이 6.0%, 학교가 2.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가 기업 주도라기보다 개인이나 디자이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특허 출원이 100.0%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한복 저고리 산업이 아직 기업 단위의 조직적 R&D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본과 마케팅의 결합이 미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복의 산업화를 위해서 개인의 창의적 발명을 양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형 비즈니스 모델’ 도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Table 6. Applicants for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it: N(%)

| Div. | Individual | Company | University | Total |
|------|-------------|-----------|------------|--------------|
| PT | 50 (100.00) | 0 (0.00) | 0 (0.00) | 50 (100.00) |
| UM | 27 (93.10) | 1 (3.40) | 1 (3.40) | 29 (100.00) |
| DR | 361 (91.9) | 17 (6.00) | 6 (2.10) | 384 (100.00) |
| Tol | 438 (93.11) | 18 (4.96) | 7 (1.93) | 463 (100.00) |

*PT:Patent, UM:Utility Model, DR: Design Right, Tol: Total

2. Filing Locations for Hanbok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의 출원지를 출원인 주소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출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허는 경상북도(24.00%)와 경상남도(20.0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18.00%), 전라남도(12.00%), 경기도(10.0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저고리 관련 ‘기술적 개선’이 수도권뿐 아니라 남부권에서도 지속적으로 권리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며, 특히 영남권에서 봉제, 패턴, 착의 편의 등 구조 개선형 아이디어가 활발히 출원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용신안은 서울(37.93%)과 경기도(24.14%) 등 수도권 비중이 높고, 경상북도(20.69%)가 뒤를 이었다.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일상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개선' 성격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착용편의성, 제작 방식의 간소화, 소재와 부자재 활용 같은 실용 중심의 개선 아이디어가 비교적 많이 제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권은 서울(53.9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도(15.63%), 경상남도(12.24%), 전라북도·전라남도(각 5.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고리 디자인의 창작과 상업적 활용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며, 동시에 지방권에서도 지역 정체성이나 전통 요소를 반영한 리디자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7>.

서울 및 경기권은 전체적으로 디자인권 출원이 70.0%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중심의 디자인 산업 집중이 뚜렷하였다. 경북·경남권은 특허(44.0%)와 실용신안(34.0%)의 핵심지역으로, 기능적 기술개선형 출원이 활발하였다. 전남·전북권은 디자인권(각 5.47%)과 특허(20.0%) 출원이 꾸준히 나타나 지역 기반 전통 복식 산업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별 지식재산권 분포의 차이는 '생산 기반 지역'과 '트렌드 소비 지역'의 전략적 분화를 나타낸다. 경북·경남 지역은 전통 한복 제작의 맥을 잇는 장인과 공방이 밀집되어 있어 실질적인 봉제 및 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서울·경기 지역은 패션산업의 인프라와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디자인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리적 분업 구조는 향후 한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시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된다.

Table 7. Filing Locations for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Unit: N(%)

| Div. | Patent | Utility model | Design right |
|----------|-------------|---------------|--------------|
| Seoul | 9 (18.00) | 11 (37.93) | 207 (53.91) |
| Kangwon | 1 (2.00) | 0 (0.00) | 2 (0.52) |
| Kyunggi | 5 (10.00) | 7 (24.14) | 60 (15.63) |
| Chungbuk | 0 (0.00) | 0 (0.00) | 0 (0.00) |
| Chungnam | 3 (6.00) | 0 (0.00) | 8 (2.08) |
| Jeonbuk | 4 (8.00) | 0 (0.00) | 21 (5.47) |
| Jeonnam | 6 (12.00) | 1 (3.44) | 21 (5.47) |
| Kyungbuk | 12 (24.00) | 6 (20.69) | 17 (4.43) |
| Kyungnam | 10 (20.00) | 4 (13.80) | 47 (12.24) |
| Jeju | 0 (0.00) | 0 (0.00) | 1 (0.25) |
| Total | 50 (100.00) | 29 (100.00) | 384 (100.00) |

3. Technological Fields Hanbok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한복 저고리의 특허를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라 분류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저고리 관련 특허는 A41D(의의, 보호복, 의류구성)와 A41H(의복 제작장치 및 제도방법) 분류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였다. 저고리의 의복구성 구조나 봉제선, 패턴 설계, 제도 및 제작 공정 개선 등과 관련된 출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41D(60.0%)는 의복 구성, 여밈방식, 인체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고리의 기능적 설계 및 봉제 개선과 관련된 출원이 주를 이루었다. 또, A41H(14.0%)는 한복 제도나 봉제 공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의복 제작 장치, 패턴 제도법, 자동화 기술 등의 출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A41B(6.0%)는 속저고리나 내의형 복식의 구조 개선을 다룬 사례로, 전통 저고리의 착용과 내의류 간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술들이 확인되었다. A44B(6.0%)와 A44C(2.0%)는 고름, 단추, 장식류 등 부자재와 여밈 구조에 관한 출원으로, 전통 저고리의 착용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D05B(재봉기술, 4.0%), D06Q(장식, 마감기술, 4.0%), D03D(직물제작, 2.0%) 등의 D계열 기술분류는 소재 및 가공 관련 보조 기술로, 한복 저고리의 기능성과 내구성, 세탁편이성을 높이기 위한 섬유 소재의 개선, 봉제 품질 향상, 장식 효과 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 출원이 나타났다.

Table 8. Detailed IPC classification of Jeogori-related Patents

Unit: N(%)

| IPC Code | Technical Field | Application count | Main contents |
|----------|--|-------------------|--|
| A41B | Shirts, underwear, and under-jeogori garments | 3 (6.00) | Structure of under-jeogori and innerwear |
| A41D | Outerwear, protective clothing, and garment construction | 30 (60.00) | Jeogori structure, seam lines, and improvements in wearing functionality |
| A41H | Garment-making devices and pattern drafting methods | 7 (14.00) | Pattern drafting, pattern making, sewing devices, and processes |
| A44B | Buttons, goreum (tie strings), and fastening devices | 3 (6.00) | Functional improvements of goreum (tie strings), buttons, and buckles |
| A44C | Ornaments and attachments | 1 (2.00) | Decorative elements for the jeogori |
| D03D | Fabric weaving | 1 (2.00) | Materials and weaving methods |
| D05B | Sewing and stitching techniques | 2 (4.00) | Sewing construction and stitching techniques |
| D06Q | Textile finishing and decoration | 2 (4.00) | Technologies related to decoration and finishing processes |
| Total | | 50 (100.00) | |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 중 특허는 A41 계열을 중심으로 전통 복식인 저고리의 기능성 부여와 제작 효율화를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D계열 출원을 통해 소재, 가공 기술이 융합된 기술 출원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복 저고리가 단순한 전통의상에서 벗어나 기능적 의류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Detailed IPC classification of Jeogori-related Utility Models

| IPC Code | Technical Field | Application count | Main contents |
|----------|--|-------------------|--|
| A41B | Shirts, underwear, and under-jeogori garments | 2 (3.40) | Innerwear-type structures such as under-jeogori |
| A41D | Outerwear, protective clothing, and garment construction | 19 (65.50) | Practical improvements in jeogori wearing structure, including sleeve closures |
| A41H | Garment production devices and pattern drafting methods | 4 (13.80) | Sewing processes and drafting devices |
| A44B | Buttons, goreum (tie strings), and fastening devices | 1 (3.40) | Simple accessories such as goreum ties and buttons |
| A61F | Hygienic and functional clothing | 1 (3.40) | Antimicrobial, health-protective functional jeogori |
| D03D | Fabric weaving (textile weaving) | 1 (3.40) | Improvements in material composition methods |
| D04B | Knitting technology | 1 (3.40) | Structures for improved stretchability and breathability |
| Total | | 29 (100.00) | |

한복 저고리 실용신안의 IPC 분류를 분석한 결과, A41D(외의, 보호복, 의복구성)와 A41H(의복 제작 장치 및 제도방법) 분류가 약 79.0%를 차지하였다. 이 두 분류는 의복의 형태, 봉제구조, 패턴 설계, 제도 장치 등에 관한 기술로, 저고리의 착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41D(65.5%)는 저고리의 착용구조, 여밈방식, 소매선 및 형태 안정성 등 의복의 실질적인 기능 개선 및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출원이 대부분이었다. 즉, 전통 한복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봉제법, 소재, 패턴을 적용하여 일상복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41H(13.8%)는 저고리 제작 장치

나 공정 자동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복 제작의 수작업 특성을 개선하고, 패턴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A41B(6.9%)는 속저고리 또는 내의형 저고리의 구조 변형을 통한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한 출원이다. 또한, A44B(3.4%)는 고름, 단추, 버클 등 여밈장치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출원이며, A61F(3.4%)는 한방 소재나 항균기능을 활용한 보건, 위생 기능성 저고리에 관한 것으로 전통복식에 기능성을 적용한 시도로 보인다. D03D(직물제직)과 D04B(편직)는 소재 구조나 통기성, 신축성 개선을 위한 기술로, 의복의 착용감 향상과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출원으로 해석된다<Table 9>.

저고리 실용신안은 의복구성(A41D) 중심의 실용적 구조 개선과 제도 및 봉제 장치(A41H) 중심의 저고리 제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출원에서는 소재, 기능성 결합(D03D, D04B, A61F 등)과 같은 융합적 기술이 있다. 개인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한복 저고리 제작이 현대적 의류산업에 맞춰 실용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Technological Fields Hanbok Jeogori-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한복 저고리 관련 디자인권의 국제디자인분류(Locarno)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출원이 의류 분야(02 계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02-01(Clothing-Garments)'이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저고리 디자인이 의복 전반의 형태, 구조, 실루엣을 중심으로 창안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전통 저고리의 형태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재단선, 소매 형태, 고름 구성, 여밈구조의 변형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02-02(Clothing-Underwear, Nightwear)' 10.7%, '02-03(Clothing-Coats, Jackets)' 8.9%, '02-04(Clothing-Trouser, Skirts)' 7.0% 등은 한복 상하의 세트 구성 및 외의 형태로 변형된 디자인으로,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바지 등 세트형 전통 의복 디자인이 원피스 형태로 출원되었다. 또한, '02-05(Traditional or Folk Costumes)'는 전통 한복의 조형미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색채나 장식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전통복식과 현대패션을 혼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저고리 디자인이 출원되었다. 이외에도 '06-01(Ornamental Trimmings, Embroidery)'과 '09-03(Textiles, Fabrics)'은 저고리 자체보다는 장식, 자수, 소재 디자인에 초점을 둔 출원으로, 한복 디자인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소재와 패턴 중심의 미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수문양, 직물질감, 색채 배합 등으로 차별화하여 디자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Table 10>.

한복 디자인권의 국제분류는 대부분 02 계열(Clothing)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02-01'과 '02-0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저고리 디자인이 저고리의 구조와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출원 위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또, '06-01'과 '09-03'과 같은 장식 및 소재 중심 분류가 나타나 한복 저고리 관련 디자인권이 단순한 형태뿐 아니라 소재, 패턴, 질감 표현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Detailed IPC classification of Jeogori-related Utility Models

Unit: N(%)

| Locarno code | Technical field | Count |
|--------------|---------------------------------------|--------------|
| 02-01 | Clothing-Garments | 183 (47.70) |
| 02-02 | Clothing-Underwear, Nightwear | 41 (10.70) |
| 02-03 | Clothing-Coats, Jackets | 34 (8.90) |
| 02-04 | Clothing-Trousers, Skirts | 27 (7.00) |
| 02-05 | Clothing-Traditional or Folk Costumes | 25 (6.50) |
| 06-01 | Ornamental Trimmings, Embroidery | 18 (4.70) |
| 09-03 | Textiles, Fabrics | 14 (3.60) |
| 02-99 | Miscellaneous Clothing | 10 (2.60) |
| Others | Mixed or Undefined | 32 (8.30) |
| Total | | 384 (100.00) |

5. Contents of Hanbok jeogori-related IP applications

한복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 내용은 크게 5개로 분류되었다. 먼저 구조 개선으로, 저고리의 의복 패턴, 절개선, 재단 편의성, 소매 구성, 여밈방법, 봉제 등에 관한 내용이 분류되었다. 두 번째는 저고리 착용감과 관련된 내용으로, 착용 후의 움직임, 활동성, 쾌적성, 압박감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는 저고리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고리 소재의 항균성, 보온성, 속건성, 방오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는 고름, 문양, 색상, 장식, 조형, 디자인과 관련된 저고리의 미적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섯 번째는 저고리의 제도, 재봉장치, 봉제공정, 제작법 등과 관련된 저고리 제작 관련 내용이었다.

저고리 관련 특허의 기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조 개선(38.0%)과 관련된 출원이었다. 전통 저고리의 재단선, 절개 구조, 여밈방식, 소매 형태 등과 관련된 패턴이나 봉제를 개선하려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활동 시 압박과 주름을 최소화하거나 고름의 위치와 형태를 조정하여 착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많았다. 착용감(22.0%)과 관련된 출원은 활동

성, 착용감, 쾌적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전통 저고리의 평면적인 패턴을 입체적으로 바꾸어 착용감을 개선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기능(14.0%) 관련 출원은 흡한-속건, 항균, 방오, 보온과 같은 기능성 소재를 적용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제작(16.0%) 관련 출원은 수작업 위주의 저고리 제작과정을 자동화하거나 기계를 개선하여 제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주를 이루어 한복의 수작업 제작 한계를 보완하려는 기술적 시도로 해석된다. 미적(10.0%) 요소 관련 출원은 고름 장식, 색채 배색, 문양에 대한 출원으로 전통적인 저고리에 현대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적 개선이 주를 이루었다.

Table 1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jeogori-related IP applications

Unit: N(%)

| Div. | Patent | Characteristics | Utility model | Characteristics |
|------------------------|-------------|--|---------------|--|
| Structural improvement | 19 (38.00) | With a focus on improving cutting lines, closure structures, and sleeve patterns | 10 (34.50) | Simplification of sleeve, goreum (tie strings), and seam/panel line structures |
| Wear comfort | 11 (22.00) | Technologies focused on mobility and comfort | 7 (24.10) | Enhanced elasticity and wear comfort |
| Functionality | 7 (14.00) | Antimicrobial, stain-resistant, moisture-wicking and quick-drying materials | 4 (13.80) | Hygienic, thermal insulation, and moisture-absorbing functionality |
| Aesthetics | 5 (10.00) | Emphasizing the formal beauty of goreum ties, patterns, and color | 3 (10.30) | Decoration, color, and goreum (tie-string) form |
| Production | 8 (16.00) |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attern drafting methods, sewing devices, and production processes | 5 (17.30) | Simplification of sewing methods and production processes |
| Total | 50 (100.00) | | 29 (100.00) | |

저고리 관련 실용신안의 기술내용 분석 결과, 구조 개선(34.5%)과 착용감(24.1%) 관련 출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저고리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의 고름 구조를 간소화하거나 소매와 몸판의 절개선을 단순화하여 제작 효율성과 착용 편리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작(7.3%) 관련 출원은 한복의 수작업 중심 제작을 개선하기 위한 봉제 방법, 제도 장치, 제작 공정 간소화 기술이 포함되었다. 기능(13.8%) 관련 출원은 위생, 향균, 보온, 흡습성 등을 가진 기능성 소재를 적용하여 전통 저고리의 계절적 한계와 불편한 착용감을 보완하려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한방소재, 천연염료, 기능성 원단을 활용하여 전통에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기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적인 부분(10.3%) 관련 출원은 고름, 색상, 장식 형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복의 심미적 가치와 장식적 요소를 현대 패션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하여 기술의 단순화와 실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저고리의 소재, 기능,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가능한 저고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키프리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198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의 기술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통 복식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저고리 관련 지식재산권은 1980년대 실용신안 중심의 소폭 개량 단계에서 2000년대 디자인 중심의 외형 보호, 그리고 2010년대 이후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된 특허 출원 단계로 진화하였다. 특히, 2021년 이후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은 K-컬처 확산에 따른 한복의 대중화와 더불어, 전통 복식을 현대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인식하여 독점적 기술권을 확보하려는 산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허 출원인의 100.0%, 디자인권의 91.9%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복 산업의 독특한 구조를 시사한다. 이는 한복 저고리 산업이 기업 주도의 대량 생산 체계보다는 개인 디자이너 및 장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수련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맞춤형이나 소량 생산에는 유리하나, 향후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표준화 및 대규모 R&D 투자에는 한계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단위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해외 한류 실

태 조사 결과에서 한류 경험자의 다수가 K-콘텐츠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한국 제품 구매 및 추천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콘텐츠 경험이 소비자의 전환가능성을 나타내므로 한복 제품군도 잠재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23].

출원지 분석 결과, 특허는 경북·경남에, 디자인권은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지리적 분업 현상이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제조 기반과 숙련 기술을 보유한 영남권이 저고리의 구조적·기술적 개선을 주도하는 반면, 패션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은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와 디자인의 공간적 분리는 한복 산업 클러스터 구축 시 지역별 특화 전략의 근거가 된다.

IPC와 Locarno 분류 분석 결과, 저고리는 단순한 형태 재현을 넘어 인체공학적 패턴 설계(A41D)와 제작 공정 효율화(A41H)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동정이나 고름의 단순 개선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향균·보온 등 기능성 소재와의 융합 및 디지털 설계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저고리가 격식 중심의 예복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쾌적성을 갖춘 기능성 현대 의류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저고리 출원 현황 및 기술 분류 특성을 바탕으로 한복 저고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창작자 보호를 위한 'IP 믹스' 및 공동 권리화 전략이 요구된다. 특허의 100.0%, 디자인권의 91.9%가 개인 출원인에 편중되어 있어 대형 브랜드 중심의 R&D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본력 있는 기업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권과 특허·실용신안을 동시에 확보하는 복합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출원 중심의 권리 확보는 기술과 디자인 자산의 파편화와 중복 비용, 침해 대응의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방 연합체 또는 디자이너 협동조합 단위의 '공동 IP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단체, 조합을 대상으로 권리화 및 관리 체계 구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공동브랜드 비전 설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도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상표, 공동디자인 등 여러 건의 IP 출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례가 존재한다[24]. 한복 분야에서도 공동브랜드, 핵심 디자인 군, 대표 기술 특허로 구성된 공동 포트폴리오 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리적 분업 기반의 'K-제조·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 출원지 분석결과, 영남권과 수도권 간의 뚜렷한 지리적 분업 구조가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영남권의 숙련된 봉제 및 기술 자산을 수도권의 디자인 기

획력과 결합하는 지역 연계형 패션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경남 장인들이 보유한 착용감 개선 패턴 기술을 서울의 디자이너들이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양산하는 협업 모델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제조 기반의 공동화를 막고 상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IPC 분석 기반의 테크니컬 저고리 개발 및 기능성 특화가 필요하다. 최근 출원이 급증한 A41D와 A41B 분류는 저고리가 단순 예복에서 일상 활동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의 원형을 유지하되 데이터에서 확인된 입체적 소매 패턴이나 탈부착형 여밈기술 등 기능적 강점을 극대화한 하이테크 저고리 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2021년 이후에 나타난 기능성 소재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K-팝 무대 의상이나 스포츠 패션과 결합할 수 있는 퍼포먼스 한복 저고리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장인 기술의 디지털 자산화를 통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출원 기술 중 상당수가 저고리 제도 및 제작 장치, 봉제 개선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수의 출원인이 영세한 개인 공방 단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술이 축적 확산되기보다는 개별 노하우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 장인이 보유한 구전·경험적 제작 기술을 3D 가상 의상 데이터로 전환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CLO 3D와 같은 가상 의상 플랫폼을 활용해 저고리의 핵심 구조를 모듈화하고 치수 항목과 여유량을 변수로 설정한 파라메트릭 패턴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맞춤 제작과 사이즈 전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패션의 표준화'라는 일반론을 넘어 소멸 위험이 있는 개인 장인의 숙련 기술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하여 기업들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의 전수와 대량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로카르노 분류를 활용한 '저고리 단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디자인권 분석 결과, 세트 구성보다 저고리 단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통 한복 세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패션 시장의 재킷이나 셔츠 대응으로 활용 가능한 '저고리 단품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이 실제 구매 기반이 큰 시장과 동남아, 인도 등과 같은 한류 경험 기반의 성장 잠재 수교가 큰 시장으로 이원화하여 저고리 단품을 'K-fashion outer' 또는 'Cultural-inspired jacket' 카테고리로 재포지셔닝하여 시장별 가격대, 소재, 착용 용도 등을 다르게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 해외 권리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에 대한 디자인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디자인 중심 논의에서 확장하여 지식 재산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통 복식의 기술 자산화 과정과 그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별성이 있다. 이는 향후 한복 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단순 전시·홍보를 넘어 기술 개선, 제작 효율, 기능성 고도화와 같은 혁신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출원인 주소지를 기반으로 출원지를 분류하여 실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 특성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원 데이터만으로는 제품화 여부나 사용자 경험과의 직접적 연결, 그리고 정책, 시장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구항 수준의 정성 분석과 사용자 착의평가를 병행하여 기술, 디자인 출원과 실제 사용자 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Heo, "Jeogori and skirt are Chuseok must-haves"...Hanbok makes a comeback thanks to K-Pop Demon Hunters, <https://v.daum.net/v/20251004160111414>
- [2] J. Han, & W. Cho, "Recent Changes in Women's Jeogori Pattern; Focused on the Jeogori's in the Seoul Gwangjang Market and Busan Jin Mark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6, No. 3, pp. 1-17, April, 2016. DOI: 10.7233/jksc.2016.66.3.001
- [3] M. Kim, Is that really hanbok? Gold-leaf sheer looks roaming the royal palaces...and even the 'Saja Boys' appear, <https://www.mt.co.kr/culture/2025/09/12/2025091117403758562>
- [4] M. Ryu, Beijing Olympics hanbok controversy sparks rare bipartisan criticism over "cultural encroachment", <https://v.daum.net/v/20220205113004143>
- [5] J. Lim, & H. Lee, "A development of Hanbok Jeogori pattern from virtual garment simulation; With a focus on women in their 5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Vol. 14, No. 4, pp. 607-613, August, 2012. DOI: 10.5805/ksci.2012.14.4.607
- [6] S. Cha, S. Heo, & M. Ahn, "Development of new Hanbok Jeogori prototyp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8, pp. 113-125, August, 2021. DOI: 10.9708/jksci.2021.26.08.113
- [7] S. Kim, "Trend analysis on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right in Hanbok costume,"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No.

- 33, pp. 111-121, March, 2015. DOI: 10.17246/jkdk.2015..33.011
- [8] G. Jung, "A study on the changes of women's Jeogori form and making women's Jeogori," Konkuk University, August, 2012.
- [9] Y. Byoun, "Examining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length of Chogori in the 19C and 20C; Centering on the Chogori uncovering breasts," Inha University, 2001.
- [10] G. Chae, "Traditional Hanbok and Han-style," Jigumunwhasa, 2012.
- [11] R. Eom, "Development of Hanbok Jeogori pattern by 3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12] J. Kwen, "A study of various collar of the casual Korean dress," Hanseo University, 2000.
- [13] J. Lee, & G. Kim, "Hanbok garment construction: A systematized theoretical framework," Kyungchunsa, 2013.
- [14] S. Seo, "Data-driven edutech program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25.
- [15] C. Kang, "A study on the effec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Hongik University, 2015.
- [16] H. Jung, "A study on the patent and utility model of Hanbok skirt,"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Vol. 27, No. 3, pp. 111-123, September, 2024. DOI: 10.16885/jkdc.2024.09.27.3.111
- [17] E. Jung, S. Kwak, & S. Park, "Analysis of patent technology trend of domestic brassie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4, No. 2, pp. 321-341, April, 2020. DOI: 10.5850/JKSCT.2020.44.2.321
- [18] S. Cha, "Research on girdle technology trends through domestic paten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9, No. 9, pp. 245-253, September, 2024. DOI: 10.9708/jksci.2024.29.09.245
- [19] S. Kim, "Multidisciplinary analysis of domestic patent and utility model trends related to maternity clothing,"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 40, No. 5, pp. 43-57, December, 2022. DOI: 10.17548/ksaf.2022.12.30.43
- [20] D. Gi, & J. Jung, "A study on the patent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sportswear leggings,"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 22, No. 1, pp. 195-202, March, 2024. DOI: 10.46669/kss.2024.22.1.018
- [21] C. Kim, & J. Lee, "Actual conditions of functional clothing development for the elderly; Based on patent analysis of functional products,"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6, No. 6, pp. 971-978, December, 2014. DOI: 10.5805/sfti.2014.16.6.971
- [22] J. Yang, J. Lee, & K. Park, "An analysi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pers and patents of clothing products to improve functionality of the clothing for the disabled in wheelchairs,"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Vol. 42, pp. 7-16, February, 2014. DOI: 10.21326/ksdt.2014..42.001
- [23] KOFICE, Overseas Hallyu Survey,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762>
- [24] S. Lee, The power of IP in revitalizing Buk Suwon Market through design and branding, <https://www.e-patentnews.com/13861>

Authors



Su-Joung Cha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lothing and Textil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in 1996, 2005 and 2009, respectively. Dr. Cha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at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in 201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uman body, virtual 3D simulation, sewing technology and pattern making.